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감사    제목:감사로 삶의 질을 바꾸기

성경:누가복음17장11-19절

11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2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환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3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4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5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18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눅 17:11-19)

삶의 질은 무엇인가?

경제적인 기준, 선진국형인가 후진국형인가, 패션, 요리, 스마트폰, 자동차, 음악, 미술, 인테리어? 영적인가 육체적인가, 세속적인가 하나님나라에 사는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다.

요리의 질은 소금으로 맞춘다.

마치 요리에 소금을 뿌리듯 삶에 감사를 뿌려 삶의 질을 바꾸자.

소금은 요리를 정결케 하듯이 감사가 삶을 정결케 한다.

소금이 요리의 맛을 내듯이 감사가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한다.

-삶의 질의 기준이 물질이나, 명품에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만족은 없다. (만족이란 특별한 질적 감각, 행복과 만족이 또 다름. 목마름이 없어짐. 안달남이 없어짐.)

-물질이나 명품도 제 몫과 질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러나 삶의 기준은 결코 아니다. 다만 감사의 재료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나는 가난해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 그래서 계속 가난하게 살거야는 마귀의 속삭임일 뿐이다. 가난해도 행복할진 모르나 만족할 순 없다.

-우리는 결코 가난하도록 지음받지 않았다. 경제활동은 소중하다.

-그러나 경제활동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우리는 동물이지만 동물스럽지 않다. 그것이 사람의 삶의 질이다.

## 나병환자 이야기

1.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큰소리로. 강력한 표현은 강력한 감동을 말함.

-감동이 사라진 세대. -감동을 TV에 의존하는 세대

-over action까지는 아니어도 정직하게 반응하는 자가 삶의 질을 높인다.

## 2. 오감에 민감한 사람.

-살기 뻑뻑하다고 대중 살려하지 말자.

-시골 할아버지처럼 속옷 바람으로 밖에 다니는 것처럼.(할배패션)

-오감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살아야 하리라.

-양심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자.

## 3.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그는 감사를 믿었다.

-사랑도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라 하기 힘들다.

-꼭 말로 해야 아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말로 표현하면 아주 좋은 것들도 있다. 그것이 감사다.

-많은 사람이 나중에 확정적으로 확인이 되면 감사하겠다는 사람이

있다.

-타이밍도 중요하다. 손님 떠난 다음에 인사하는 것과 똑같지 않는가?(영화 찍나?)

-확정적이지 않아도 감사하면 좋다.

-감사는 삶의 질을 바꾼다.

-감사는 더럽힘을 씻어낸다.

-감사는 마귀의 악한 말을 씻어낸다.

-감사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감사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 당긴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룩하게 회복시킨다.

-감사만큼은 자기가 스스로 우러나와서 해야 한다.

-감사할줄 모르는 자는 스스로 환자임을 깨닫고 치유받아야 한다.

<찬양예배>

주제: 부흥    제목: 부흥을 먼저 누리라!    말씀: 시42편

1 [고라 자손의 마스길(교훈),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교훈

2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을까

3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4 내가 전에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5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6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니이다

7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8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9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10 내 뼈를 찌르는 칼 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11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42:1-11)

1. 주를 찾기에 갈급하라.
2.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3.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지기를 구하라.
4.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던 자들이 어디에 있는가? 함께 할 수 없음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5.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스스로 불안해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 6,7. 여행 중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다윗.
  
8. 밤에는 찬송으로 기도하며 새 힘을 얻자.  
-찬송은 영적 전쟁, 우리가 찬송할 때 마귀가 떨고, 힘을 잃고, 패배한다.